

# 「허황옥 설화」의 의미 양상과 인물의 특징

하 경 숙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계약제교수)

- I. 머리말
- II. 「허황옥 설화」의 특징
- III. 「허황옥 설화」에 형상화된 여성 인물의 양상
  - 1. 여성의 능력 표출
  - 2. 새로운 도전의 면모
- IV. 「허황옥 설화」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특성
- V. 맺음말

### <국문 요약>

허황옥은 허황후(許皇后)라고도 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와 김해 허씨(金海許氏)의 시조모이다. 허황후에 대한 기록은 『三國遺事』 「駕洛國記」와 「金官城 婆娑石塔」조에 수록되어 있다. 그는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이며 16세의 나이로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가락국 수로왕의 배필이 되었다. 허황옥과 관련된 이야기에는 교역시대 이후 탐, 무덤, 붉은기, 신어(神魚)가 등장한다. 이들이 취급한 주요 물품에는 비단(능라), 금, 차, 소금, 쌀 등이 존재한다. 수로왕과 결혼하기 위해 멀리 아유타국에서 배를 타고 온 허황옥의 이야기는 고대의 ‘국제(國際)결연담’이라는 의미와 이주여성, 문화의 혼재, 선진문물의 수용이라는 다양한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허황옥 설화>에서는 고대사의 역사를 밝힐 수 있으며, 고대 해상교류를 통한 문물의 교류와 문화교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난다. 허황옥이라는 새로운 문화 유입자를 통해 선진문물을 접하고 그 속에서 ‘쌍어’가 서사의 중요한 화두로 작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종교의 흔적으로 여겨진다. ‘쌍어’는 다양한 사람들의 기원과 소망으로 연결할 수 있고 이 안에는 다양한 문화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쌍어’를 통해 사람들의 이동과 교류 등 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상세히 알 수 있다.

허황옥이 지닌 주체성과 독립성은 여성이 지닌 근원적 생산성과 풍요성과 별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스스로의 삶을 구현한 것이다. 고대 가야의 여성인 허황옥은 여성의 능력을 실천하고, 새로운 도전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는 현실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며 주체적인 삶을 실현하고자 한 현대의 여성들과 다르지 않다. 아울러 <허황옥 설화>는 해상을 통한 이동과 정착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경로의 선명함과, 교류와 충돌을 바탕으로 한 융합을 보여주며 그 속에 주체성을 지닌 여성의 모습과 문화현상의 단면이 분명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주제어: 허황옥, 가야, 수로, 아유타국, 문화 전파, 쌍어.

## I. 머리말

신화와 역사는 서로를 비추는 내면의 거울로써, 안팎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엮여 있는 피비우스의 띠와 같다.<sup>1)</sup> 허황옥은 허황후(許皇后)라고도 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와 김해 허씨(金海許氏)의 시조모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하는 ‘허황옥’의 이야기는 대단히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허황후에 대한 기록은 『三國遺事』 「駕洛國記」와 「金官城 婆娑石塔」조에 수록되어 있다. “허황후는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이며 16세의 나이로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왔다”고 되어있다.<sup>2)</sup> 『삼국유사』 소재 설화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특징은 대체로 사회적 범주가 넓고 활동이 많은 남성이 중심을 이루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서술된 작품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기이편> 마지막에 서술된 가야의 이야기의 핵심은 허황옥이라는 왕비가 출현한 것이다. 특히 외국인이라는 특수한 인물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수하다.

허황옥은 『삼국유사』 속에 존재하는 매력을 지닌 여성인물로 대중들이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여러 요소들이 있다. 특히 우리 고전서사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외국이라는 점과 여성인물로 허황옥이 지닌 다양한 인물적 특성은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각각의 학문적 배경과 다양한 논리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허황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가락국기>의 허황옥은 가야의 첫 번째 왕인 김수로의 ‘협력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능력을 활발히 보여주고 있다.

허황옥은 지금의 시각으로 본다면 다문화이주 여성으로 볼 수 있다.

---

1) 이봉일, 「신화와 역사의 간극에 대한 한 연구: 김수로왕 신화의 역사적 이해」, 『국제한인문학연구』 13호, 국제한인문학회, 2014, 174쪽.

2) 일연, 『삼국유사』, 「가락국기」조. “妾是阿踰陀國公主也, 姓許名黃玉, 年二八矣”

머나먼 아유타국의 공주가 꿈에 하늘의 계시를 받고 동쪽 나라의 왕비가 되고자 가야라는 나라에 들어온 것이다. 그녀가 타고 온 배에는 마사탑이 함께 전하는 것으로 볼 때 불교의 전래도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농후하다.<sup>3)</sup> 설화 텍스트 그 자체를 하나의 ‘상징symbol’으로 혹은 상징적인 텍스트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런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sup>4)</sup>

역사적 진실 여부와 해석의 문제를 바탕으로 그간 역사학과 문학, 철학, 민속학, 종교학 등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었다.<sup>5)</sup> 『三國遺事』에 쓰여진 허왕후의 실존에 대한 의문을 중심으로 가야국의 성립과 배경,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의 기원 그리고 인도불교의 남방전래설 등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허황옥 설화를 단순히 허구의 이야기로 규정하기에는 이동과 정착의 경로가 선명했고, 교류와 충돌을 바탕으로 한 융합이라는 측면으로 문화현상이 분명하게 형상화되어

- 
- 3) 표정옥, 「『삼국유사』에 재현된 여성의 양성성에 대한 현대적 문화 담론 연구」, 『인간연구』 20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1, 181쪽.
- 4) 오세정, 「한국 건국신화의 정치 약호와 상징작용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8,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5, 153쪽.
- 5) 백창기, 「가락국 초기 왕비족의 연구 : 허황옥 집단의 성격과 관련하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1; 민도안, 「문화 다원론적 관점에서 살펴본 구비설화의 교육적 가치 : ‘수로왕과 허황옥의 결혼’, ‘선녀와 나무꾼’형 설화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2012; 이옥려, 「한·중 허황옥에 관한 문화관광콘텐츠 비교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2011; 백승충, 「김해지역의 가야 관련 전승자료 : 허왕후 설화를 중심으로」 『향토사연구』 제15집, 효원사학회, 2003; 이광수, 「가락국 허왕후 渡來 說話의 재검토 : 부산-경남 지역 佛敎 寺刹 說話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제31집, 한국고대사학회, 2003; 이광수, 「古代 印度-韓國 文化 接觸에 관한 연구 : 駕洛國 許王后 說話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10집, 비교민속학회, 2003; 이창식, 「허황옥 전승의 비교민속학적 가치」, 『비교민속학』 제49집, 비교민속학회, 2012; 김경복·이희근, 『이야기가야사』 청아출판사, 2010; 이희근, 『한국사 그 끝나지 않는 의문』, 다우, 2001; 조원영, 『가야 그 끝나지 않은 신화』, 혜안, 2008; 김병모, 『한국문화 분석』 통천문화사, 2009; 김병기, 『가락국의 후예들』, 역사의 아침, 2008; 이광수, 『인도사에서 종교와 역사 만들기』, 산지니, 2006; 강평원, 『임나가야』, 뿌리출판사, 2005.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허황옥과 관련하여 당대 사회적 모습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인 허황옥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 상징, 배경, 문화적 측면 등을 상세히 밝혀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한편 여성인물이 지닌 특수한 상황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고대인의 의식 세계를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 속 여성들이 가진 역할과 그 세계관에 관하여 점검하고자 한다.

## II. 「허황옥 설화」의 특질

『삼국유사』는 다분히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상세히 나타낸다. 한편의 설화 속에 표현된 삶의 형태는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 처한 현실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재편된다. 무엇보다 『삼국유사』 속에 등장하는 여성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경력을 보이는 이로 허황옥을 꼽을 수 있다. 가야국의 김수로왕과 아유타국의 허황옥이 결연하는 시기, 중국 보주지역은 삼국 중 촉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다. 허황옥이 실제 보주로 이동이 된 것인지, 혹은 인도 조상을 둔 보주 출신의 아유타국 공주인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sup>6)</sup> 이를 밝히기 위해 그간 지속적인 노력을 했고, 이는 김해지역의 역사, 고대 해상교류를 통한 문물의 교류와 문화교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하나의 증거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해양교류가 문화 전달과 유입에 큰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황옥 설화>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로왕이 배필이 없어 신하들이 근심하던 차에 허황옥 일행을 태운 배가 바다에 나타난다.
2. 신하들이 일행을 맞이하려 하자 허황옥은 이를 거부한다.

6) 김병모, 『허황옥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 역사의아침, 2008.

3. 이 소식을 듣고 수로왕이 직접 나가 일행을 맞이하고 극진히 대접한다.
4. 아유타국의 공주였던 허황옥이 가락국에 오게된 내력을 이야기한다.
  - 부왕과 모후의 꿈에 상제(上帝)가 동시에 나타나 허황옥을 가락국으로 보내어 김수로왕의 배필로 삼으라고 했다.
  - 허황옥은 잉신(媵臣)내외와 노비 20여명과 함께 배를 타고 가락국에 왔으며 금수, 능라웃, 필단, 금은, 주옥, 경구, 장신구 등을 배에 가득 싣고 왔다.
  - 수로왕 역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뱃사공들에게 곡식을 주었으며 가락국에 남게된 일행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일용품을 넉넉하게 내주었다.
5. 수로왕과 허황옥은 결연을 맺고 이후 둘은 합심하여 가락국의 문물과 제도를 완비하였다.

수로왕과 결혼하기 위해 멀리 아유타국에서 배를 타고 온 허황옥의 이야기는 고대의 ‘국제(國際)결연담’으로 손색이 없다. 허황옥은 수로왕의 배필이 되라는 상제의 계시를 받았고 수로왕은 자신의 배필이 먼 곳에서 올 것을 예견하였다. 수로왕은 공주가 먼 곳에서 찾아오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것은 유수(劉秀)에 의해 왕망의 세력이 토멸되자 먼저 떠난 수로가 뒤늦게 찾아올 일족(一族)이 있을 것을 예측했던 것이며, 결국 황옥과의 혼인은 혈족혼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7)</sup>

중요한 것은 설화에 드러나는 외적인 양상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주해 온 허황옥의 ‘이주가 지닌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들의 이주는 ‘문화 혼재’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현재 북인도의 아요디야가 아유타국이라는 설이며, 다른 하나는 아유타국이 남인도의 어떤 지명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즉 『삼국유사』의 아유타국 즉 갠지스 강 유역에 있었던 고대 인도의 아요디야(Ayodhya)가 현재의 아요디야이며, 허황옥은 바로 이 아요디야의 공주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수로왕릉 정문과 안향각(安香閣)에 남아있는 쌍어문(雙魚文)이 인도의 아요디야 지역에서 널리 볼 수 있는 쌍어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sup>8)</sup> 쌍어문은 이들의 이주의 특성을 추측하는

7) 김인배, 「해류를 통해 본 한국 고대민족의 이동-가락국 허황후 출자에 대한 기존학설 비판」,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89, 125쪽.

의미로 작용한다.

쌍어신앙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 종교, 문화 의미를 살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나타내는 한자 어(漁)가 여유롭다는 한자 여(餘)와 중국어 발음이 유사하여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길상의 의미로 여겨졌다. 이외에도 한 번에 많은 알을 낳는다는 생태적 특성으로 다산(多産)을 의미하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부지런한 수행의 의미로 인식되어 사찰의 기둥이나 벽, 천장 등을 물고기무늬로 장식하였다. 인류의 수렵활동에서도 물고기는 중요한 식량자원이었기에 중국 채도 등 선사시대 그릇에서도 물고기무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더 많은 물고기를 포획하여 풍족한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욕망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자기 등 공예품에 나타난 물고기문은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많다. 쌍어무늬는 조화 또는 부부의 화합을 상징한다. 또한 귀중한 것을 간직하는 다락문에 물고기 그림을 붙이거나 물고기 모양을 자물쇠 또는 손잡이에 사용하였다. 이는 물고기가 항상 눈을 뜨고 있어 이것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었다. 삼국시대에 요패에 달린 여러 장식 중에 물고기가 있어 밝은 눈, 여유, 평화 등을 상징하고 있다.<sup>9)</sup>

수로왕릉과 아요디아 쌍어문이 같다고 가정하지만 그것을 선명하게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또한 수로왕릉의 쌍어문 뿐만 아니라 현재 아요디아 지역에 존재하는 쌍어문의 등장이나 변화 등 역사적 배경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수로왕릉의 쌍어문이 옛 가락국의 중요한 상징이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아요디아의 쌍어문이 허황옥 시대에도 존재했다는 것은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 다만 「가락국기」 또는 『삼국유사』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유타국은 이미 일정 이상 알려진 유명한 국가이며 도시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쌍어는 허황옥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지점이다. 쌍어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지중해에서부터 한반도까지 넓은 지역에 살았으며, 기원전 7세기경

8) 김병모, 「고대 한국과 西域관계: 아유타국考 II」, 『한국학논집』 14집, 1998, 8쪽.

9) <http://www.culture.go.kr/tradition/patternView.do?did=28181>.

부터 서기 1세기경까지 육로를 통해 서로 접촉했다.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스키타이, 간다라, 마가다, 위난, 쓰촨, 가락국, 일본의 야마대국 등지에 걸치는 광범한 내륙지방을 오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만물을 보호하는 수호신이었다.<sup>10)</sup> 우리나라 김해지역 전설에도 쌓어와 관련한 신성물고기, 범공양 신수로 남아있다. 김해 신어산(진산), 은하사, 동림사 대응전 수미단과 들보, 납릉정문 등이 살아있다. 한국에서는 왕릉의 대문과 부처님을 모시는 수미단에 장식되었고, 왜국에서는 여왕의 옷을 장식하는 무늬로, 후세에는 재물신을 모시는 이나리 신사(神社)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sup>11)</sup>

허황옥 전승의 코드에는 교역시대 이후 탐, 무덤, 붉은기, 신어(神魚)가 있다. 주요 물품코드에는 비단(능라), 금, 차, 소금, 쌀 등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sup>12)</sup> 여기에 『삼국유사』에 허황옥이 금수(錦繡)와 능라(綾羅) 등을 많이 갖고 왔다는 기록도 이들이 중국산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허황옥의 중국 경유설이 설득력 있게 보인다.<sup>13)</sup> 허황옥이 가락국에 도착할 때 비단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폐백으로 바치는 것은 가락국(駕洛國)에 산신을 숭배하는 신앙의 형태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다.<sup>14)</sup> 허황옥이 인도에서 바로 한반도로 왔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삼국유사』에서 허황옥이 가락국에 올 때 항해의 안전을 위해 ‘파사석탑’을 배에 싣고 왔는데, 그 석탑의 돌이 우리나라에 나지 않는 것이라고 전한다.<sup>15)</sup> 고대 인도와 한국과의 문화관계는 고인돌과 쌀의 관계,

10) 김병모, 『허황옥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 역사의 아침, 2008, 300~320쪽.

11) 이창식, 「허황옥승의 비교민속학 가치」, 『비교민속학』 49집, 비교민속학회, 2012, 20~24쪽.

12) 김병모, 앞의 책, 43~89쪽.

13) 조흥국, 「고대 한반도와 동남아시아 및 인도의 해양교류에 관한 고찰」, 『해양도시문화교섭학』 3호,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0, 99쪽.

14) 이창식, 『허황옥 전승의 비교민속학적 가치』, 『비교민속학』 49집, 비교민속학회, 2012, 22쪽.

15) 조흥국, 「고대 한반도와 동남아시아 및 인도의 해양교류에 관한 고찰」, 『해양도시문화교섭학』 3권,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0, 99쪽.

농업관계 어휘 등에서 특히 고대 드라비다어와 한국어와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sup>16)</sup>

이처럼 <허황옥 설화>에서는 지금의 현실과 극명히 다른 인물이 출현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나름의 특수한 사연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수로와 허황옥, 가락국과 아유타국, 산신숭배의 토착신앙과 초기의 남방불교, 북방계와 남방계, 쇠 금(金) 자의 철기문화와 바다(海)를 건너온 도래문화 등의 이질적인 다문화의 융합이 형상화되어 있다.<sup>17)</sup>

그러나 그것을 규명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주지할 사실은 허황옥은 타지(他地)에서 이방인(異邦人)이라는 평범하지 않은 처지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상황을 수용하고 풀어나가는 노력을 결코 아끼지 않았다.

### Ⅲ. 「허황옥 설화」에 형상화된 여성 인물의 양상

설화를 주목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중의 의식과 변화과정을 파악하는 것에 유용한 방법으로 진정한 생활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sup>18)</sup> <허황옥 설화>에 등장하는 서사 내적 관계망과 그것을 통해 형성되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9)</sup> 이 서사는 배경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서, 허황옥의 신분, 수로왕과 허황옥의 결연담 등 서사표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실은 바탕으로 다양한 상상과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허황옥이 이주하면서 배에 싣고 온 진기한 물품들은 그녀가 이제껏 향유했던 높은 선진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16) 김인배, 앞의 책, 122쪽.

17) 송희복, 『외국 소설 속에 그려진 김해의 여인 -허황옥과 백파선』, 『국제언어문학』38호, 국제언어문학회, 2017, 43쪽.

18) 임재해, 「설화 자료에 의한 역사연구의 방법 모색」, 『說話와 歷史』, 집문당, 2002, 44~46쪽.

19) 오세정, 「수로부인조의 원형성과 재조명된 여성상-『삼국유사』 <수로부인>과 극 <꽃이다>를 중심으로」, 『한국고전 여성문학연구』 28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264쪽.

하지만 오로지 가야인(伽倻人)들의 입장에서는 낯선 문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가야인은 생소하고 낯선 것들을 긍정하고 포용함으로써 가야의 문화는 성숙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 1. 여성의 능력 표출

서기 48년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은 친오빠 장유화상과 수행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락국으로 시집을 와 가락국의 초대왕 김수로왕의 왕비가 되었고, 이듬해, 거등왕을 비롯하여 자식 10명을 낳았다. 이후 허황옥은 가락국에서 주요한 위치를 갖게 되며 김수로왕에게 다양한 협조를 한다. 남편 김수로보다 열 살 연상이다. 서사 내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양하고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행위 범주는 제한적이며 행위 범주들은 각각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sup>20)</sup> 수로왕은 처음에는 신하를 시켜 허황옥 일행을 맞이하려 하였으나 허황옥이 이를 거부하자 그 뜻을 존중하여 몸소 일행을 맞이 하였다. 허왕후는 가락국 성립의 중심축을 담당했던 왕비족 수장으로 볼 수 있다. 허왕후는 혼자 이주한 것이 아니라 20여 명의 동행을 '가락국가'에서 설명하고 있고, 허왕후 집단의 존재를 전하고 있다. 허왕후 뿐만 아니라 조광, 신보의 여식들은 2대 거등왕, 3대 마품왕의 왕비로 선택됐다. 이를 통해 허왕후 집단이 가진 성격 중 하나가 왕비족이라는 것이다. 가락국 성립기의 왕권은 수로왕의 왕족과 허왕후의 왕비족으로 구성됐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허왕후는 왕비족으로 역할을 했으며, 초기 가락국 지배의 절반을 담당했던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락국기>에 서술된 허황옥은 가야의 첫 번째 왕인 김수로의 조력자(助力者)가 아니라 동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허황옥은 다문화 이주 여성이다. 즉 떠나면 아유타국의 공주가 꿈에 하늘의 계시를 받고 동쪽 나라의 왕비가 되고자 가야라는 나라에 들어온 것이다. 그녀가 이주할 때 사용된 배 바사탑이 함께 전하는 것으로 볼 때

20) 테렌스, 『구조주의와 기호학』, 오원교 역, 신아사, 1998, 126~128쪽.

불교의 전래도 함께 이루어졌을 확률이 높다. 일연이 <가락국기> 텍스트 안에서 주목한 허황옥의 특징은 양성(兩性)적인 인간이라는 점이다.<sup>21)</sup>

또한 두 아들에게 자신의 성(姓)을 이어주는 인물이다. 허황옥은 아들 일곱 명을 낳았고 그중 네 명은 아버지 수로왕의 성을 따르고 나머지 세 명은 어머니 허(許)씨의 성을 따르게 했다고 한다. 이는 아버지의 성만을 따르기 보다는 여성인 자신의 성을 따르게 하여 여성의 주체성과 평등을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허황옥은 다문화 여성이면서 호주제를 시행한 여성이라 볼 수 있다. 고대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중심적인 시각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는 여성들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좌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화에서 허황옥은 자신의 뜻을 펼치는 자신감을 보여 준다. 허황옥을 황후로 받아들인 김수로왕은 구간 등의 이름을 보다 존엄하게 바꾸고 제도와 가옥을 정비하면서 나라의 틀을 재정비한다. 이러한 일들이 허황옥의 가야국으로 이주한 이후인 사실로 보아 제도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실질적이고 중요했다는 가능성을 알려준다. 불교와 다양한 선진 문화를 먼저 경험한 여성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여성평등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고대 여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사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서 보여진다. 가야는 수로왕의 8대손 질지왕(김질왕)이 허황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元嘉 29年 임진에 수로왕과 허황후가 합혼한 곳에 절을 세우고 王后寺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sup>22)</sup> 이 王后寺는

21) 표정옥, 『삼국유사』에 재현된 여성의 양성성에 대한 현대적 문화 담론 연구- <기이편>에 등장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20호, 카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1. 181쪽.

22) 元君八代孫金銓王 克勤爲政 又切崇眞 爲世祖母許皇后奉資冥福 以元嘉二十九年壬辰於元君皇后合婚之地創寺 額曰王后寺. 遣使審量近側平田十結 以爲供三寶之費. (中略) 銓知王 一云金銓王. 元嘉二十八年卽位. 明年 爲世祖許黃玉王后奉資冥福 於初世祖合 御之地創寺 曰王后寺.(三國遺事 卷2 紀異2 駕洛國記) 首露王聘迎之 同御國一百五十餘年. 然于時海東 未有創寺奉法之事. 蓋像教未

후에 붙여진 것이고 그 신은 허왕후를 기리는 사당 즉 왕후사(王后祠)였는데, 수로왕과 허황후가 합혼한 곳은 곧 생산의 상징이 된 장소였으며 허황후는 곧 제의를 주관하는 사제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sup>23)</sup> 생산이 중요한 고대사회에서 사제인 여성은 생산 그 자체로 보거나 혹은 상징주체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제의를 주관하는 여성이나 제의의 주체가 되는 여신들을 위해 祠가 생겨난 것이 이러한 신앙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다. 허왕후를 ‘황후’라고 칭한 것이나 그녀의 죽음을 ‘崩’<sup>24)</sup>이라고 한 것은 사후(死後)에 신앙상이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사제로서의 허왕후는 정사(政事)에도 관여했을 것이다.

이 설화에서 허황옥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며 현실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여성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존 사회와 대립하지 않고 소통과 상생(相生)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주체적 상황과 평등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고대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위상에 대하여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고대 사회의 여성이지만 허황옥은 자신이 능력을 갖추고 주변과 동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이주민이며, 여성 리더로서의 능력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 2. 새로운 도전의 면모

<허황옥>설화는 한국 스토리 원천으로 작용하여 대중들에게 끊임없는 상상력과 호기심의 절정을 보여준다. 고대의 세계에 대한 편견 중 우리가

---

至 而土人不 信伏 故本記無創寺之文. 逮第八代銓知王二年壬辰 置寺於其地 又創王后寺〔在阿道訥祗王 之世 法王之前.〕至今奉福焉 兼以鎮南倭 具見本國本記.(三國遺事 卷3 塔像4 金官城 婆娑石塔)

23) 권주현, 「王后寺」와 가야의 불교전래문제 -加耶社의 관련하여-, 『대구사학』 95권, 대구사학회, 2009, 50~51쪽.

24) 靈帝中平六年己巳三月一日 后崩 壽一百五十七. 國人如嘆坤崩 葬於龜旨東北塢 遂欲志子 愛下民之惠 因號初來纜渡頭村 曰主浦村 解陵袴高岡 曰綾峴 茜旗行入海涯 曰旗出邊(中略)元君乃每歌鰥枕 悲歎嘆良多 隔二五歲 以獻帝建安四年己卯三月二十三日而殂落 壽一 百五十八歲矣. 國中之人 若亡天只 悲慟甚於后崩之日.(三國遺事 卷2 紀異2 駕洛國記)

오해하고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고대인들의 생활공간과 공간의식이다. 이들은 특정한 공간에 갇혀서 생활했을 것이라는 편견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허황옥 일행의 이주를 통해 이들이 다양한 공간의식과 다양한 이동의 범주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허황옥이 이동한 공간은 사실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다양하게 남아있다. 이전에 여성은 반드시 남성에게 자신을 맡기고 보호를 원하며, 위장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허황옥은 제도권 속에서 안일하게 생활하지 않고, 다양한 삶의 판로를 개척하고 이주하는 여성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허황옥 설화는 여로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이주 스토리의 특성이 충분히 드러난다. 모험담은 영웅이 위험을 극복하고 임무를 완수하여 그 보상을 받는 이야기인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서사물이다.<sup>25)</sup>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 정도로 모험이란 단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서 모험이 위험과 관련이 있는 단어임을 알게 한다. 모험은 재미, 유쾌, 유머를 동반하기보다 비장, 스릴, 공포의 정서가 주도한다. 모험은 재미나는 장난과 흥미진진한 탐험 이전에,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품고 있다.<sup>26)</sup> 수로가 선주세력이기 때문에 새롭게 가야로 이주해 온 허황옥은 선진문화를 전수해 주는 역할을 한다. 건국 신화에서 왕가를 구성하는 새로운 구성인물이 이주해 올 때 그들은 부분 기존의 세계질서에 비해 우월한 문화를 수하는 역할을 한다.<sup>27)</sup>

낮선 지역으로의 이동과정에서 생겨나는 특이한 경험이나 일련의 일들이 모험의 중심이 된다. 허황옥은 익숙한 공간을 떠나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는 순간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불규칙한 숙식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때로는 적대감을 드러내는 대상과 마주치기도 한다. <sup>28)</sup> 그러나 모험이 단순히 무섭

25)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5, 45쪽.

26) 최애순, 「30년대 모험탐정소설과 김내성 『백가면』의 관계」, 『동양학』 44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8, 7쪽.

27) 오세정, 「한국 신화에 나타난 바다의 의미」, 『한국고전연구』 2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322~323쪽.

고 공포스러운 경험에 그치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고 어느 지점에 목표를 둔다는 점으로 본다면 <허황옥 설화>는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허황옥은 안정된 장소에서 벗어나 미지의 공간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무섭고 공포에 해당하는 경험이다. 그러나 허황옥에게 정면으로 다가온 다양한 위험을 지나쳐서 ‘가야국의 입성, 새로운 문물전달’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일련의 특별한 경험으로 축적되었다. 모험의 스토리는 가볍고 쉬운 흥미만을 지닌 이야기가 아니라 가볍고 흥미로우면서 시대적인 의의를 드러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sup>28)</sup> 여기에 허황옥을 황후로 받아들인 김수로왕은 구간(九干) 등의 이름이 위엄(威嚴)이 없음을 알고 이름을 보다 존귀(尊貴)하게 바꾸고 제도와 가옥을 정비하면서 국가의 틀이 잡혀가는 것을 알게 해준다.

허황옥과 관련된 이야기는 단순하거나 명확하여 단편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고, 다양한 상징들이 요소에 숨어있어서 흥미롭다. 여기에 ‘허황옥’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평범한 이주 여성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고대 가야와 인도의 문화적 교류를 제공하는 교류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 전승(傳承)에는 실증적 생활문화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당대의 기제와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다.

허황옥의 이주는 모험(冒險)을 넘어서 새로운 문화를 유입하는 과정이다. 허황옥 집단이 해로(海路)를 통해 가락국에 도래하였고, 인명(人名) 등에서 중국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가지고 온 물품들 역시 위세(威勢)품(정치적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이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들 양 집단간의 이해관계 및 문화적 동질성, 해로를 통한 교류등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28) 고운기, 「모험스토리 개발을 위한 『삼국유사』 설화의 연구」, 『신라문화』4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3, 310쪽.

29) 고운기, 위의 논문, 327쪽.

#### IV. 「허황옥 설화」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특성

남성 시각이나 남성의 언어, 남성의 해석에서 벗어나 언술의 표면, 틈, 이면, 행간을 통해서 기존의 시각에서 놓쳤거나 고의적으로 무신경하게 넘어갔던 것을 찾아 규명한다면 우리 선조들의 여성의 면모는 다양하고 많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sup>30)</sup> 이런 방식으로 볼 때 여성인물들은 형식 주체인 남성들에게 특정한 자질을 갖추게 하거나 행위를 하게 하는 실질인 행위 주체인 것이다.<sup>31)</sup>

설화라는 것이 구전되고 채록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흥밋거리나 거쳐 오는 시대의 여러 요소들이 가미됨으로써 본래의 완벽한 형태를 알 수도 없으며 정확한 사건이나 시기 역시 불분명하기<sup>32)</sup> 때문에 명확한 역사적 사실을 찾기가 어렵다. 허황옥 서사는 인물의 실존의 여부를 떠나서 역사적 인물로 비중을 두기 보다는 설화적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대체적이었다. 현재에 와서는 이를 기반으로 인물의 실존과 김해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 등을 단순한 설화로 간주하는 것은 정밀한 관련사료 과정을 거친 결과이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김해에서 수많은 발굴조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인도 계통 유물, 유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황옥의 경우 최초의 이주 여성으로 삶을 경험하고 선진문물을 경험하고 이를 가야라는 국가에 유입해주는 특수한 역할을 맡았고, 국가의 완성과 새로운 정비에 주체적으로 노력한 인물이다. 자신의 경험한 문화나 체험을 외부

30) 강명혜, 「고전문학에 투영된 한국 여성 영웅의 담론적 특성」, 『한국문학과 예술』11권,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 예술연구소, 2013, 97쪽.

31) 오세정, 「고려건국신화의 여성인물 연구」, 『우리문학연구』48집, 우리문학회, 2015, 26쪽.

32) 김지영, 「고구려의 혼숙-한씨 미녀 설화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6권, 한국역사연구회, 2017, 58쪽.

인들에게 전달하고 문화의 주체가 되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고정된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외부세계로 나아가 개인이나 사회, 나아가 국가적 고난과 역경까지 극복해 내는 능력으로 확대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자아와 세계와의 일치된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유동적인 존재로 보여진다.<sup>33)</sup>

전통적인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핵심으로 존재하기 어려웠고, 대체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외부로 표출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적극적인 여성은 남성에 기대어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현실적인 제약을 깨뜨리고 결단력 있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sup>34)</sup> 그러나 전통적인 규범의 여성은 근면 검소함이 필수적이며 특히 결혼한 여성은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며 부지런히 생활하고 검소와 절약을 습관화 하도록 교육받았다.<sup>35)</sup>

<허황옥 설화>에는 다양한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확정된 것은 없다. 여기에 투영된 상징적인 사실들을 놓고만 본다면 허황옥은 표면적으로 비현실에 가까운 인물로 보일 수 있는 있지만, 좀 더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고 성장시키는 현재 여성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허황옥은 이주 여성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경험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허황옥은 인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봉하여 가야까지 온 이주(移住) 여성이자 모험가이다. 차와 불교라는 문물을 전달해주고 가야와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정치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허황옥 설화>에 내포된 다양한 상징에는 새로운 문화, 문화의 혼재

33) 김현화, 「홍계월전의 여성영웅 공간 양상과 문학적 의미」, 『한민족어문학』70, 한민족어문학회, 2015, 255쪽.

34) 이광훈, 「활자본 「설인귀전」과 「설정산실기」를 통해 본 영웅성과 여성의 자아실현」, 『한국문학과 예술』21권,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7, 223~224쪽.

35) 하경숙, 「여성 악인(惡人)의 형상화와 특질-뽕덕어미형 인물을 중심으로」, 『온지논총』51권, 온지학회, 2017, 58쪽.

양상, 자신의 주체성 강조라는 적극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여기에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표면으로 드러내게 하는 인물로 작용한다. 새로운 문화 유입자를 통해 선진문물을 접하고 그 속에서 다산이나 풍요에 대한 기원의 흔적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쌍어’가 서사를 풀어가는 핵심이 되는데 이는 종교의 흔재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속에는 민중(民衆)들이 바라는 소망(所望)의 표상으로 현상적 인간이라는 제한을 넘어 새로운 문화적 능력을 전파하는 여성인물로 형상화할 수 있다.

여성성과 관련된 규정되어진 특성들은 감성과 감정에 의지하고 관계 중심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여성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 주로 사회에서 규정하는 ‘여성다운’ 행동들로 남성에게 의탁하고 복종적인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는 내용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황옥은 여성에게 주어진 수동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주체성을 찾고, 이주여성으로 당면한 여러 가지 혼란을 극복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정비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다진다.

여성과 남성의 개인적 사회적 위치나 활동의 범위가 같지 않다. 여성은 남성과의 대비나 대응의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의 구심점을 찾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허황옥은 이런 측면에서 제정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주요한 비중을 갖고 자신의 활동에 자유가 보장되었던 사회에서 살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능력을 표출했다. 여성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서 기인하는 여성성을 배양하였다. 결국 허황옥의 서사과정은 한 여성이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고, 이주여성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삶의 열망과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는 한편 새로운 문화 유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일련(一連)의 사건으로 작용한다.

여성 리더로서 자신의 신하들을 이끌고 외국으로 시집을 왔고, 당당하게 왕에게 예의를 갖추어 신부를 맞이하라고 자신의 의견을 요구한 것, 아들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주는 모습은 매우 진보적인 여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허황옥이 지닌 주체성과 독립성은 여성이 지닌 근원적 생산성과 풍요성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아울러 기존 사회의 질서와는 다른 실천적인 여성으로 스스로의 삶을 구현한 것이다.

## V. 맺음말

여성은 비단 남성에게 한 타자로서 늘 존재해 왔던 것만도 아니었다. 때론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오히려 남성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때론 남성의 뒤에서 조심조심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곤 했다.<sup>36)</sup> 여성의 역할은 변별하는 주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허황옥은 아유타국의 공주로 가야에 와서 김수로왕과 혼인을 하고 아들을 열 명을 낳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세상을 편안하게 했다.

수로왕과 결혼하기 위해 멀리 아유타국에서 배를 타고 온 허황옥의 이야기는 고대의 ‘국제(國際)결연담’이라는 의미와 이주여성, 문화의 혼재, 선진문물의 수용이라는 다양한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허황옥 설화>에도 기원에 대한 신성화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는 신화적 특성이 보여진다. 이는 허황옥은 수로왕의 배필이 되라는 상제의 계시를 받았고 수로왕은 자신의 배필이 먼 곳에서 올 것을 예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허황옥 집단은 해로를 통해 가락국에 도착하였는데, 이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이들은 일정 이상 항해에 익숙했던 세력으로 볼 수 있다.

<허황옥 설화>에서는 고대사의 역사를 밝힐 수 있으며, 고대 해상교류를 통한 문물의 교류와 문화교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난다. 그간 여성의 역할은 유명무실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 엄격한 권위를 확립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러나

36) 박상영, 「고전 시가 속 여성 형상의 제시 양상과 그 시가사적 함의」, 『한민족어문학』 64, 한민족어문학회, 2013, 300쪽.

<허황옥 설화>에는 이주민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지닌 평범하지 않은 여성이 다양한 사회적 제도를 경험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상세히 보여준다. 다시 말해 여성은 소극적이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삶의 의미가 한정되어있던 상황을,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지닌 여성의 출현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역할 모델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을 찾을 수 있다.

허황옥이라는 새로운 문화 유입자를 통해 선진문물을 접하고 그 속에서 다산이나 풍요에 대한 기원의 흔적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이 서사에서 ‘쌍어’가 서사의 중요한 화두로 작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종교의 흔적으로 여겨진다. ‘쌍어’는 다양한 사람들의 기원과 소망으로 연결할 수 있고 이 안에는 다양한 문화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쌍어’를 통해 사람들의 이동과 교류 등 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상세히 알 수 있다.

허황옥이 지닌 주체성과 독립성은 여성이 지닌 근원적 생산성과 풍요성과 별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스스로의 삶을 구현한 것이다. 고대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중심의 제도속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는 여성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좌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가야의 여성인 허황옥은 여성의 능력을 실천하고, 새로운 도전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는 현실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며 주체적인 삶을 실현하고자 한 현대의 여성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허황옥 설화>는 해상을 통한 이동과 정착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경로의 선명함과, 교류와 충돌을 바탕으로 한 융합을 보여주며 그 속에 주체성을 지닌 여성의 모습과 문화현상의 단면이 분명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 <참고문헌>

- 일연, 『삼국유사』, 「가락국기」조.
- 강명혜, 「고전문학에 투영된 한국 여성 영웅의 담론적 특성」, 『한국문학과 예술』11권,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 예술연구소, 2013.
- 고운기, 「모험스토리 개발을 위한 『삼국유사』 설화의 연구」, 『신라문화』4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3.
- 김현화, 「홍계월전의 여성영웅 공간 양상과 문학적 의미」, 『한민족어문학』 70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
- 김병모, 『허황옥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 역사의아침, 2008.
- 김병모, 「고대 한국과 西域관계: 아유타국考 Ⅱ」, 『한국학논집』 14집, 1998.
- 김병모, 『허황옥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 역사의 아침, 2008.
- 김인배, 「해류를 통해 본 한국 고대민족의 이동-가락국 허황후 출자에 대한 기존학설 비판」,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89
-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5.
- 김지영, 「고구려의 혼속-한씨 미녀 설화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6권, 한국역사연구회, 2017.
- 김혜숙 외, 『여성과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9.
- 박상영, 「고전시가 속 여성 형상의 제시 양상과 그 시가사적 함의」, 『한민족어문학』 64, 한민족어문학회, 2013.
- 백창기, 「가락국 초기 왕비족의 연구 : 허황옥 집단의 성격과 관련하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1.
-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 송희복, 『외국 소설 속에 그려진 김해의 여인 -허황옥과 백과선』, 『국제언어문학』38호, 국제언어문학회, 2017.
- 이봉일, 「신화와 역사의 간극에 대한 한 연구: 김수로왕 신화의 역사적 이해」, 『국제한인문학연구』 13호, 국제한인문학회, 2014.
- 이유경, 『고전문학 속의 여성영웅형상연구』, 보고서, 2012.
- 이창식, 『허황옥 전승의 비교민속학적 가치』, 『비교민속학』 49집, 비교민속학회, 2012.

- 오세정, 「수로부인조의 원형성과 재조명된 여성상-『삼국유사』 <수로부인>과 극 <꽃이다>를 중심으로」, 『한국고 여성문학연구』 28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 오세정, 「고려건국신화의 여성인물 연구」, 『우리문학연구』 48집, 우리문학회, 2015.
- 정경민, 『여성이인 설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조흥국, 「고대 한반도와 동남아시아 및 인도의 해양교류에 관한 고찰」, 『해항도시문화교섭학』 3호,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0.
- 표정옥, 「『삼국유사』에 재현된 여성의 양성성에 대한 현대적 문화 담론 연구-〈기이편〉에 등장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20호, 카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1.
- 테렌스, 『구조주의와 기호학』, 오원교 역, 신아사, 1998.
- 하경숙, 「『삼국유사』 「수로부인(水路夫人)」 조(條)에 구현된 여성인물의 형상과 특질」, 『한국문학과 예술』 18, 숭실대학교 문학과예술연구소, 2013.
- 하경숙, 「여성 악인(惡人)의 형상화와 특질-뽕덕어미형 인물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51권, 온지학회, 2017.

## Abstract

*Semantic Aspects of Characteristics of the 『Heo Hwang-ok Tale』 and  
Characteristics of the Figure / Ha Gyeong-suk(Liberal Arts,  
Sunmoon University)*

Heo Hwang-ok is also called Heo Hwang-hoo and is the progenitor mother of Gimhae Kims(金海金氏) and Gimhae Heos(金海許氏). The records of Heo Hwang-ok are contained in 「Karagguggi(駕洛國記)」 of 『Samgukyusa(三國遺事)』 and in the Buddhist law of 「Geumgwangseong Pasaseoktap(金官城 娑婆石塔)」。 She was the princess of Ayodhya(阿踰陀國) and became a wife of King Suro of Garakguk at the age of 16 after receiving a divine revelation of Heaven.

The ‘Migration’ of Heo Hwang-ok can be considered as a type of ‘cultural mix’. In the story of Heo Hwang-ok, pagoda, tomb, red flag and spiritual fish are described. Major articles that they traded in were silk(twill damask and brocade), gold, tea, salt, rice and others.

The ocea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ir migration and trade and its route is clear. The story of Heo Hwang-ok, who came by ship from Ayodhya to get married to King Suro emphasizes the meaning of ancient ‘international relationship’ and various aspects, such as a migrant woman, cultural mix and acceptance of advanced culture.

The <Heo Hwang-ok Tale> can explain the ancient history and shows proof of exchange of goods and cultures through ancient marine trade. They experienced advanced culture through a new cultural inflow agent, Heo Hwang-ok and ‘Twin Fish’ is an important topic in the story. Twin Fish here is regarded as a trace of various religions.

‘Twin Fish’ can be connected to prays and wishes of many different people and different cultures are represented in here. ‘Twin Fish’ helps in understanding life styles of ancient people, including migration and trade in detail.

The identity and independence of Heo Hwang-ok represents her life as a practical woman, not being separated from fundamental productivity and abundance of women. As a woman in ancient Gaya, Heo Hwang-ok practiced female abilities and displayed a new challenge. This is not different from modern women trying to raise their voices and live independent lives in reality.

Additionally, the <Heo Hwang-ok Tale> reveals the clear route in the process of migrating via the ocean and settling down, and fusion, based on exchange and collision and clearly represents an independent woman and cross sections of the cultural phenomenon.

Key words: Heo Hwang-ok, Gaya, Suro, Ayodhya, Culture Diffusion, Twin Fish.